왜곡하고 싶은 역사(III) - 기생 라합의 응원

(마1:1~6a, 수2:8~14)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8.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어온 왜곡하고 싶은 반갑지 않은 역사 세 번째로 기생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생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본래의 단어를 제대로 번역 하자면 매춘부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매춘부 혹은 창녀 라합에 관한 족보 이야기,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을 준비 하면서 오래전에 군대생활을 시작하던 초기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미군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정훈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훈교육이라는 것은 군대에 파병 나와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군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윤리적인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미군부대의 극장 안에 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극장에 카투사(KATUSA-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United States Army) 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이 자리에 총각 있으면 손들어 봐라.”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 맨 앞에 우리부대 비행대였었는데 비행대가 맨 앞에 앉아 있었던 연고 때문에 맨 앞에서도 또 졸병이었기 때문에 맨 앞줄에 앉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질문을 받고 손을 자연스럽게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듦과 동시에 천명이 앉아있는 그 극장이 뚜껑이 날라 갈 정도로 웃음소리가 박장대소하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손을 들고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 봤더니 계단식 의자로 쭉 멀리 끝이 보이지 않는데 저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손들었다가 부대까지 걸어가는데 우리부대 고참들이 뒤따라오면서 순번대로 뒤통수를 갈깁니다.
“목사님들이 물어 볼 때는 그렇게 대답하라고 물어 본 게 아니야. 당신의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그냥 질문을 한 거지 이 바보 자식아!” 때리고 “너는 그렇게 잘나고 깨끗하냐?” 때리고, 때리고 마지막에 어떤 고참이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자식 되게 잘 난 척 하네. 네가 그렇게 도도하고 잘 나서 쓰레기 같은 인생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지?”

그 때 쓰레기 같은 인생은 사창가에 살고 있는 창녀들을 일컬어서 한 말인 것을 압니다.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매춘부를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자기들은 왜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 곳을 찾아갈까? 혼자서 의문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몸을 팔아 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로서 그분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하나님 믿게 되는 계기가 그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의 아들들이 사창가에 가서 창녀 하나를 열애하게 되고 결혼하겠다고 부모 앞에 와 이야기 할 때에 흔쾌하게 그의 영혼만을 보며 "예스"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온갖 생활 쓰레기를 다 담은 쓰레기통을 안방에 끼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이나 아들이 사랑하게 된 그 창녀를 여기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몸을 팔아 사는 여인들 오늘날에나 그 옛날에나 예수님의 시절에나 언제나 사회로부터 통념상 쓰레기 같은 인생들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춘부 중에 하나였던 이방 여자 라합, 더군다나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치지 않았던 그 옛날, 더러운 한 이방 여인 라합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졌다는 성경은 어느 정도로 높이고 있느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믿음 때문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다 열거 하려면 시간이 부족 할 것임으로 그만두자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그만두자는 이름 속에는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들어가 있고,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언급한 마지막 부분에다가 시간이 없어 그만두자는 말을 하기 직전에 누구의 얘기를 하느냐?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하여서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줄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창녀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기림 받고 높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기생 라합이 한 일이라고는 읽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에요, 간첩, 이 간첩을 자기네 집에 숨겨 두어서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기다리는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 두었다가 무사하게 돌려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물론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보호하지 않았다 해서 여리고 성이 안전했겠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럴 수가 없지요.
기생이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논개 기억하십니까? 선조 임금 때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일본군들이 들어와서 저 남쪽의 진주성을 함락시킵니다.
진주성을 함락시키고 기쁘다고 자축연을 하는데 논개가 거기에 초청받아갑니다. 기생으로, 수청 들라고…

그런데 이 논개가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촉석루라고 하는 정자에서 잔치연이 베풀어 질 때에 적장을 끼어 안고 손가락이 빠지지 않게 가락지를 낀 손으로 끼어 안은 채 촉석루에서 아래로 남강으로 빠져서 자결합니다.
우리나라 진주성을 강탈한 왜적의 왜장을 기생 논개가 끼어 안고 자결하며 자기의 목숨과 함께 왜장을 죽여 버립니다.
기생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알았다가 큰 코 다치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 논개와 비교해 볼 때에 라합은 천하에 몹쓸 사람 아닙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진멸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진멸시키는 일을 하는 적국의 스파이를 감추어 주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다윗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얘기 하면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출애굽 했던 이야기, 홍해바다를 갈랐던 이야기, 얘기를 다 들었지요.
이 얘기를 들은 것은 여리고 성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들었지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둘 다 겁에 질려서 간담이 녹아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문을 꼭꼭 닫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생각이 달랐던 것이에요.
뭐가 달랐냐?
이스라엘과 여리고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자기들과 여리고 사람들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여리고 성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나라를 넘겨준 매국노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나라를 넘겨준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여기에 기생 라합의 독특한 그 때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여리고 성 사람들의 싸움이었다면 창녀 아니라 아무리 못 되어 먹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나라를 응원하지 외국을 응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의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것임을 내가 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리고 성 사람들의 싸움판이 벌어질 것인데 나는 누구를 응원하느냐?
하나님을 응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겨라. 하나님 잘하신다. 하나님 박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겨라.” 이렇게 응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라합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마음 상태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런 얘기해요. 아! 우리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 엄마한테 찾아

와 가지고 “엄마 나 돈 벌 거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엄마가 찾아 와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철이 들었다”고, 이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돈 벌 거라고 얘기 하고 있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축하합니다. 돈 벌 거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우다니요.”

이 상황에서 라합의 상황을 적용해 봅니다.
여리고 성을 진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예뻐서 여리고 성을 진멸하고 여리고 성을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뜻이 있고 여리고 성에는 여리고 성에 대한 뜻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죄악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내 자식이 돈을 벌 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바른 목표예요, 여러분?
바른 목표가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저 엄마한테서 기대서 살던 녀석이 자발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운 것이 귀엽고, 예뻐서, 대견스러워서 “그래! 기도해 줄게, 돈 열심히 벌게 기도해 줄게.”
이것은 라합이 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라합이 보는 시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내 자식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 돈 벌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 기특합니다.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식 속에 죄악을 보니, 하나님이 이기시옵소서.
철저하게 돈 벌겠다는 생각을 깨게 하시고,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망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시옵소서.”
이게 라합의 믿음 이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돈 버느라고 교회 나올 생각도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이 때 라합의 기도가 어떤 기도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겨서 내 남편의 사업으로부터 내 남편의 마음이 떨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라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독특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생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명분을 갖다 붙이면 무조건 옳은 건 줄 아는 게 있어요. 무조건 옳은 건 줄 알아요.

사무엘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라.”
다시 말하면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이기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고 있는 경제적 윤리, 성적 윤리, 아이들의 학교문화, 이 상태 그대로 그 나라가 잘 되어도 되겠습니까?
잘된다는 게 뭐예요, 잘된다는 게?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는 나라 안에 나라를 위한 기도,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조건 옳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통에 백 명밖에 믿지 않을 역사가 만 명이 믿을 역사로 바뀐다면 “하나님 이기세요. 당신의 뜻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식민지하에 있던 이스라엘 때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을 보면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은 아마 속이 뒤집혀져 버릴 겁니다.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과, 내 자식 속에 있는 죄를 보시면서 대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기세요. 내 자식을 이기시고, 내 자식의 소원을 이기시고, 자식에 대한 나의 바람과 희망을 이기세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매춘부 이방인, 이 더러운 여자가 하나님 편을 들었어요.
“나라를 이기세요. 내 나라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라합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 기억나는 제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에서 머물고 있을 때 주말마다 테니스, 그 유학생들이 만든 테니스 클럽에 가서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삼 개월 정도 테니스를 배웠을 때였어요.
복식으로 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팀을 짜는데 잘하는 사람들을 윗줄에다 쭉 세워 놓고, 못 하는 사람들을 섞어서 잘하는 사람 밑에다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둘씩, 둘씩 짝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처음으로 제가 게임에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삼 개월이 지난 뒤에.

그리고 첫날 팀이 된 제일 잘하는,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울대 체육학과를 나온 분인데 체구도 작고 빼빼마른 사람인데 체육 만능입니다.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테니스면 테니스, 그 사람은 폼도 자기 폼이에요. 배운 대로 안 해요.
그런데 테니스도 서양 애들 이렇게 2미터 가까이 되는 애들하고 테니스를 쳐도 지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단식을 치면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가 한 편이 딱 되었어요.

와~ 속으로 얼마나 좋던지. '이야! 오늘은, 오늘은 진짜 스트레스 한 번 확 풀고 가겠네.' 하고 생각을 하고 게임에 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분께서 테니스 라켓을 땅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에 딱 와서 앉아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이유를 알고 봤더니 나하고 같은 편이 된 것이 이 분에게는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테니스 치러 왔는데 둘이서 작전을 세워도 "너 코트 앞에 가서 막아라." 막아집니까?
내 마음은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데 공은 사방으로 튀어 가요. 작전을 짤 수가 있습니까?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라켓을 패대기를 치고 "안 한다." 고 소리를 치면서 벤치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게임이 안 될 사람들을 왜 이 게임에 집어넣느냐?"고 소리를 딱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온 코트가 찬물을 끼어 얹은 것처럼 조용해지면서 저를 봐요.
여러분, 그까짓 테니스 안치면 그만이에요.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못하는 거는 맞잖아요. 내 마음에는 얼마나 그 사람하고 같은 편 된 것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야! 나는 오른쪽 귀퉁이에 딱 머물러 있으면서 저 사람은 혼자 뛰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최대한으로 공간을 할애하고 우리가 이기도록 잘 편을 들고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같은 편 되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싫은 것을 느끼면서 나는 그렇게 절망에 빠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딜 가나 기가 살아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같은 편이 되어 주겠다는 데도 그렇게 나올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몸을 팔아먹고 살던 매춘부 라합이 하나님 편을 들었습니다.
매춘부 라합의 지혜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라합의 능력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합의 명성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직 걸리적거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밴쿠버에 명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쳐 지나가고 매춘부 넷이서 달려오더니 너무 반갑다고 소리를 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아는 척하고,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뺑소니칠 거예요. 뺑소니를, 누가 볼까봐.
목사가 혹시 보지 않나? 그래 가지고…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진멸하기 바로 직전에 기생 라합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창녀 라합, 그냥 라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가씨 라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창녀 라합의 가족을 다 끌어내서 진멸하는데 멸망당하지 않게 하라" 얘기 합니다.
그렇게 끌어내서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다 어디다 두는지 아십니까?
군인들은 다 빠져 나가고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남아있는 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막을 치고 있는 진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라합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의 진 바깥에 두라." 왜?
거룩한 모임 안으로 이방 창녀의 가족이 들어 올 수 없으므로 바깥에 두라 하는 것이에요.
정탐꾼을 숨겼기에 살려 줬습니다마는, 이제 진 바깥에 따로 라합의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여호수아까지 외쳤던 창녀 라합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텐

데,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라합의 가족을 예의 주시합니다.
“정탐꾼을 살려 줬기 때문에 살아났대.” “저 여자는 창녀래.” “창녀의 가족들이래.” “어, 그래!” “그래서 저 진 밖에 있는 거구나.”
라합의 가족들끼리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라합에게?
“라합아! 우리가 차라리 여리고 성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죽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에 족장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변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선택한 이스라엘 25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도를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진입시킵니다.
250만 명 중에 한 사람도 순수하게 “하나님 이기세요.” 편들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의 모든 적군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실 것이다. 우리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나님 이기세요.” 하는 말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말은 했지만, 사랑하는 조국이 있고 하나님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라합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기세요.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이기세요!”

진 바깥에 창녀의 집이라고 따로 구분해 두었어요.
250만 명이 하나님을 쳐다보며 기뻐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찌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250만 명의 시선을 다 재끼시고, 재끼시고 “우리 라합 어디 있냐?” “우리 라합 어디 있냐?” 찾고, 찾고 찾으시다가 진영 바깥에 쓸쓸하게 앉아있는 라합을, 가서 가슴으로 덥석 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기시는데 어느 자리까지 옮기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하늘나라에서 차지한 자리 중에 라합이 어느 자리까지 옮겨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진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서열을 성령은 알고계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장로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라면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한 바른 믿음의 예를 들 때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요셉과 사무엘과, 다윗과, 이사야, 엘리야,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옆에다가 바짝 세우면서 바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예로 누구를 갖다 대느냐?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 옆에 라합을 들입니다.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아브라함과 라합을 동등한 위치에 세워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라합이 차지하는 위치가 바로 그 위치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모세도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민족과 하나님이 있어요,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겨라! 하나님 이겨라!" 하나님을 응원했던 라합이 아브라함 바로 옆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응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응원한 팀의 선수들이 전광판에 크게 얼굴이 나오고 인터뷰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인터뷰가 다 끝나고, 운동장 그늘 밑으로 혼자 사라지고 버스 타고 조용히 집에 오면서 응원했던 팀의 승리를 내 승리로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뛴 선수들은 아무도 그 사람을 모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몰라요.

라합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응원합니다. 이방 여자고, 기생입니다. 하나님을 응원한 후에 목숨 부지하면 다행이려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수로 뛰신 하나님께서 그늘 속에 가려져 버스타고 집에 가고 있는 라합을 쫓아가서,

열심히 달려가서 버스를 세웁니다.
라합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안습니다. 안고 갈 때에 엘리야가 보고, 다윗이 보고, 사무엘이 봤을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나? 라합을? 어디로 저 매춘부를 데리고 가시나?
가시고, 가시고 가셔서 아브라함 옆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마음에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이 간과(看過)하실 수 없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일지라도 그 속에 반드시 그의 인생을 망치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향해 대치하고 있고, 그의 죄악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식을 어떤 고통의 자리로 끌고 가실지 모릅니다. 내 남편을 그 속에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구렁텅이에 집어넣을지 모릅니다. 이 때 사랑하는 남편과 험난한 인생을 앞두고 있는 남편과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남편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절 지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잘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 속에 죄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식을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자식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기세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응원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생인, 여자인, 이방 여자인 라합을 들어서 가슴에 안으시고 가장 보좌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이에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십니다.
하나님의 서명을 받은 매춘부의 인생이 메시야가 이 땅에 내려오는 족보에 끼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 롱펠로에 관한 에피소드를 아십니까? 어느 날 롱펠로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주워서 그것을 펴고 거기다 시를 짧게 썼습니다. 그 종이가, 시의 내용이야 인쇄하면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접 쓴 그 종이가 6천 불에 팔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처음에 받았던 사람 손에서.
마찬가지예요. 구겨진 인생입니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장을 찍어 주시면 매춘부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 옆에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하늘나라의 특권층이 됩니다.
변방에서 살았던 이 매춘부가 이변을 일으키며 하늘나라 보좌,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때까지 라합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민족이 있고 민족의 죄악 때문에 대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이 창녀 라합, 당신의 편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 테니스하는 유학생처럼, 태 목사 내 팽개친 그 사람처럼 그러지 않으시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더러운 그 라합을 가슴 깊이, 깊이 당신의 넓은 가슴에 끼어 안으시고 보좌의 가까운 곳으로 데려 가셨어요.
이 라합의 믿음, 우리 삼성교회 모든 교인들의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사랑하는 대상들 앞에서 “하나님 이기세요. 하나님 이기세요. 하나님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만 외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기뻐하시며 이 누추하고 더러운 인생들을 가슴에 안아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라합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교회 교인들,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매사에 “하나님 이기세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을 응원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